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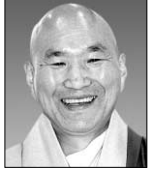
일주문



박태화 스님 49재 봉행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 법다 스님은 지난 12월 29일 통일법당에서 조선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박태화 스님 49재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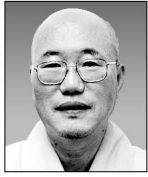
화엄산림대법회 회향
양산 통도사 주지 협문 스님은 지난 12월 30일 화엄산림 회향법회를 봉행하고 평양예술단을 초청해 국악한마당을 개최했다.



어린이 단기출가 수련회
김전 직지사 주지 성용 스님은 1월 9일부터 14일까지 제2회 동안 어린이 단기출가 수련회를 개최한다. (054)436-6084



천일불사기도 500일 회향
서울 금강선원 원장 해거 스님은 1월 9일부터 15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천일불사기도 500일 회향 특별기도 법문을 한다. (02)445-8484



일본속의 한국문화 탐방
파라미타정소년협회 회장 원택 스님은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2회 청소년 자살탐사 '일본속의 한국문화 탐방' 행사를 개최한다. (02)723-6165



인드라망 회원총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1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인드라망생명교육센터에서 회원총회를 열고 사업계획 등을 논의한다. (02)576-1886



우수통일교육위원회
경주 오덕선원 주지 정여 스님은 통일부 우수통일교육위원으로 선정, 지난 12월 28일 정부 종합청사 별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청소년 인도 워크캠프
정토회 대표 유수 스님은 1월 13일부터 27일까지 수자타야카데미 등에서 제4차 청소년 인도 워크캠프를 진행한다. (02)587-8993



한국박물관협회 신년교례회
한국박물관협회 김중규 회장은 1월 16일 오후 4시 국립중앙박물관 으뜸홀에서 신년교례회를 개최한다. (02)795-09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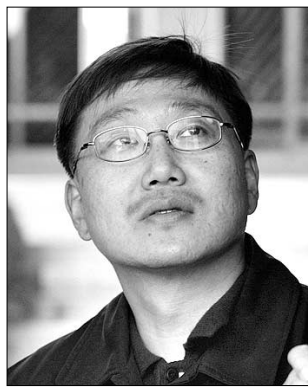


광주 운불련 10대회장 취임
광주 운불련기사불자연합회 김재덕 회장은 1월 11일 우산복지관에서 개최되는 13차 정기총회에서 제10대 회장으로 취임한다.

“전통사찰 콘텐츠 가치창조 무한”

‘전통사찰총서’ 완간 ‘불교문화사전’ 착수 신대현 위원

2006
크밀 준비해오



간직하고 있는 제주 불교의 특성을 잘 담아보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또 올해 새로 추진할 사업으로 하반기부터 사찰의 역사와 문화, 문화재 등을 분야별로 수록할 <불교문화사전> 편찬 작업과 최소한의 비용으로 현대화된 사지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00 사찰 참배를 평생의 원으로 삼고 생활하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절 위주로 몇 개 사찰만 찾아옵니다. <전통사찰총서>를 보고 다양하게 사찰을 순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4월 <제주도>편을 끝으로 총 21권의 <전통사찰총서>를 완간하는 사찰문화연구원 신대현 연구위원(45·문학박사·사진). 신 위원은 15년 동안 전국 1000여 개 사찰을 답사했으며, 이중 800여 개 사찰을 <전통사찰총서>로 묶어냈다.

<전통사찰총서> 21번째권을 집필하기 위해 1월 12일 제주도로 떠나는 신 위원은 2월 말까지 40여 개 사찰을 답사하고 돌아올 예정이다. 신 위원은 “민간 신앙을 포용하며 불교의 장점인 원용의 모습을

합이나 쪽보가 바로 사지인데, 대부분의 사찰에 사지가 없다”며 “큰 곳 작은 곳 가릴 것 없이 사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기간 법등을 밝혀온 만큼 그 역사를 기록한 사지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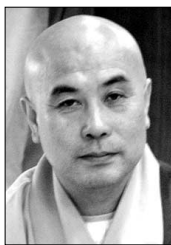
사찰문화연구소(02-2004-8284)는 현재까지 봉은사 보문사 낙산사 용주사 선바사 금산사 등의 사지를 제작했다.

사찰문화연구소는 1992년 이흥부 전 종무관, 김규철 불교방송 당시 사장, 박세일 서울대 교수, 명호근 쌍용은행 사장, 신대현 연구위원 등이 불교문화의 진면목을 알리고 불교를 현대화하는 발판을 삼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설립했다. 이후 <전통사찰총서> 시리즈와 <한국사찰의 현판1> <북한사찰연구> <불교의 효사상> 등의 책을 펴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산림보호 공로 대통령 표창

월정사 사회국장 관행 스님



이라는 두 요구가 맞부딪혔을 때 어느 한쪽의 손을 들기보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상 소감은, 지금 행사 준비 때문에 바빠요.”

지난 12월 30일 대전 산림청 강당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관행 스님(사진). 스님은 산림보호 등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했지만 세세에도 여전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다.

스님은 지난해 백두대간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환경단체 및 관련 기관과 조율을 위해 부지런히 발품을 팔았다. 한민족의 상징인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한 이 법이 지역주민들에게는 생활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육해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스님의 이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지역포교를 위한 원력이 자리 잡고 있다. 지역중심사찰로서 지역에 깊숙이 뿌리내리기 위해서 어느 것도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님은 지난해 스님과 신부들이 참여한 주구대회와 지역주민 주구대회 등을 개최하기도 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능지 스님 세번째 시집 ‘고구려...’ 펴내



부산불교신문협회 회장 능지 스님(사진)이 세 번째 시집 <고구려 옛 하늘을 날아>(세종출판사)를 펴냈다. 14년 만에 펴낸 시집에는 69편의 시가 실렸다. 66년 출간한 스님은 65년부터 70년까지 <현대문학> 3회 추천을 받아 등단했으며, 1972년 승려시인협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8차례 항암치료...

골수증 앓는 정의성씨 생명나눔 '이들의 환우' 선정



생명나눔 실천본부에서 1월의 환우로 선정된 정의성(36·사진씨).

2004년 11월 병원을 찾았던 정씨는 다발성골수증을 앓고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 정씨는 8차례의 항암치료와 말초혈액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타인골수이식 등의 수술이 남아있는 상태. 정씨는 병을 앓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니던 자동차 영업직도 그만둔 상태라 생계가 막막하다.

더구나 9년 전 결혼해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려오던 아내인 아내도 유방암을 앓다가 2004년 11월 결혼기념일에 사망했다. 현재는 9세의 아들만이 정씨의 병상을 지키고 있다. (02)754-8050

이은비 기자

암투병·잠적·불교귀의 과정 시집에 담아

‘가슴 적시며 피어 오르는’ 펴낸 전규태 교수



“정년퇴임을 며칠 앞두고 받은 직장암 선고는 저에게 불자로서의 새 삶을 열어준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전규태(70·사진) 前 연세대 국문과 교수. 미국 하버드대와 콜롬비아대, 호주 국립대 등의 교환·연교수로 활동하며 누구보다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다 어느 날 돌연 자취를 감춰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인물이다.

그런 그가 지난 7년간의 투병생활과 불교에 귀의한 인연 등을 담은 시집 <가슴 적시며 피어 오르는>을 펴내고 모습을 드러냈다.

“최장암 수술을 받고 난 후 의사는 저에게 ‘출가하는 마음으로 속세와 인연을 끊고 절에서 생활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야 앞으로 3년 정도는 더 살 수 있다고. 그래서 모든 인연의 끈을 놓고 사찰을 찾게 됐습니다.”

평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지인이 석주 스님의 유발상좌였던 인연으로 그는 석주 스님을 찾아갔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도 자신이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가는지 얘기하지 않았다. 목실한 기록 고 신자였던 그가 사찰을 찾아간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하기 힘든 거란 생각

에서다. 보문사에 머물던 그는 병마와 싸우며 하루 16시간씩 누워있어야 했지만, 틈틈이 불경을 읽고 글을 썼다. 석주 스님에게 직접 <금강경> 강의를 듣기도 했다.

“사실 저야 불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오직 생명을 이어보고자 절을 찾았던 것인데도 스님께서는 절 너머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인물이다. 스님께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서 몸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호주 정법사와 일본 고려사 등에 머물며 통역과 번역 봉사를 하고, 국내에서는 범어사와 은해사 등 석주 스님의 수행처를 참배하며 신심을 다졌다. 최근 호주에서 머물던 그는 1개월간의 일정으로 임시 귀국했다.

후학들이 그의 건강을 기원하며 고회기념 문집 <전규태의 문학세계>를 펴냈기 때문이다.

“뒤늦게 부처님 품에 안겼지만, 크나큰 가피를 입고 이렇게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숨 쉬는 그날까지 글을 쓰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불자로서의 올바른 회향이 아닐까요?”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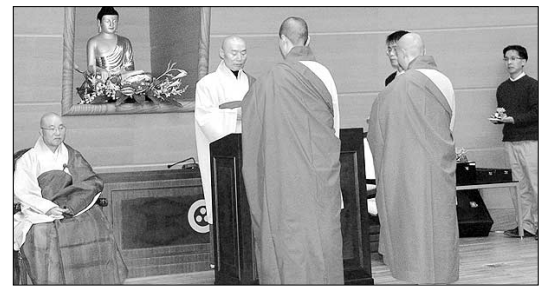
형성 죽림산사 선원으로 탈바꿈

마음의 컴퓨터 대중포교도량 역할을 해온 형성 죽림산사가 최근 참선 정진하는 선원으로 모습을 바꿨다.

죽림산사 참전주 선형 스님(사진)은 이번 동안거부터 죽림산사를 수행정진을 위한 도량으로 제공해 현재 네 명의 스님이 안거에 들어갔다. 선형 스님은 “법당 산신각 등 원력 세웠던 모든 불사를 회향하게 되었으므로, 참선정진 하고자 하는 스님과 재가자들이 이곳에서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강원학인 논문공모전 시상식



조계종 교육원(원장 정화)은 지난 12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회 전국강원학인 논문공모전 시상식을 봉행했다. 대상에는 운문사 대교반 중률 스님의 ‘발현, 현장, 의정 해초 스님의 기행문을 통해서 본 서역구변 활동 고찰’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비한 손

天一氣功

이재복 회장(독일 동서의학 병원에서 인정증 획득)

天一氣功研究會

경천대학교, 중앙경찰학교, 삼성종합화학(주) 한솔개발(주), 육군73사단, 한국중공업 등 수련지도

수련생의 특징

- ◆ 3박4일 코스 이수자는 중국심양중의학원 친구, 추나, 안마 특별 자격증 연수교육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연수비 혜택) (2월초 예정) 선착순 15명
◆ 3차교육후 국내 4년제 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대체의학요법과정)
◆ 분회수련을 마친분 중에 관심있으신분 연락요망

천일기공연구회

소백산수련원

수련문의전화 02)3436-3206~7(서울분회) 054)637-9810(경북영주수련원)

● 수련원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氣功指導師 과정(속성반) 3박 4일코스

53기 - 1월19일 오후 2시 ~ 22일 12시

※ 매월 선착순 20명 마감

천일기공책/300페이지 값 10,000원

- ◆ 性命雙修(성명쌍수) - 몸과 마음을 같이 닦는 것이 도와 건강에 이르는길입니다.
◆ 色心不二(색심불이) -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가 아닌데 마음만 닦으면 몸은 언제 닦으시렵니까?
◆ 몸이 마음을 담는 그릇(法器)인데 몸이 병들면 마음이 청정해질 수 있나요
◆ 골격이 틀어지고 숨줄이 막혀 있어서 앉아 있을수록 몸이 뒤틀리고 다리가 저려서 좌선을 할수가 없는데 어찌 도를 닦는다 하십니까?
◆ 숨을 고르는 것과 만들어 쉬는 것이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인데 그 원리를 아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세상에는 숨을 만들어 쉬면서 큰병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 가는 수행자가 없지는 않습니다.
◆ 여기 성명 쌍수와 숨을 올곧게 고르는 수행법으로 인연있는 불자와 스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 수련을 마친 스님들께서 비록 짧은 3박 4일이지만 평생에 소중한 인연 맺은 좋은 기회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1 단계 수련 : 몸만들기 비결을 배우시면 질병에서 벗어나고 신도님들께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 ◆ 수련 2일째부터 양손에서 기를 발공하여 환자들의 막힌 경락을 소통하여 사기, 병기, 냉기, 탁기를 배출하여 건강한 양체의 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 천도제를 많이 지내는 스님들 중 사기를 많이 받아서 병의에 시달리거나 이유없이 몸이 아프고 몸이 냉하고 병마에 시달리는분은 수련기간중에 해답을 얻습니다. 얼굴이 시커멓게 된 분은 사기가 많은 분입니다. 3박4일 수련으로 얼굴빛이 흰하게 변합니다.
◆ 기를 발공하면 곧바로 나뭇기운이 빠져나오고 약취가 진동하고 찬바람이 소용돌이 치면서 빠져나옵니다. 거기에 손을 대보면 손이 시리고 따갑고 저린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질병을 일으키는 원흉입니다.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분들에게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누구나 기치유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 두통, 오심, 견, 좌골 신경통, 요통, 디스크, 구안와사, 신경통, 테니스엘보, 관절염(통) 등 통증 치유법을 배워서 환자들을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